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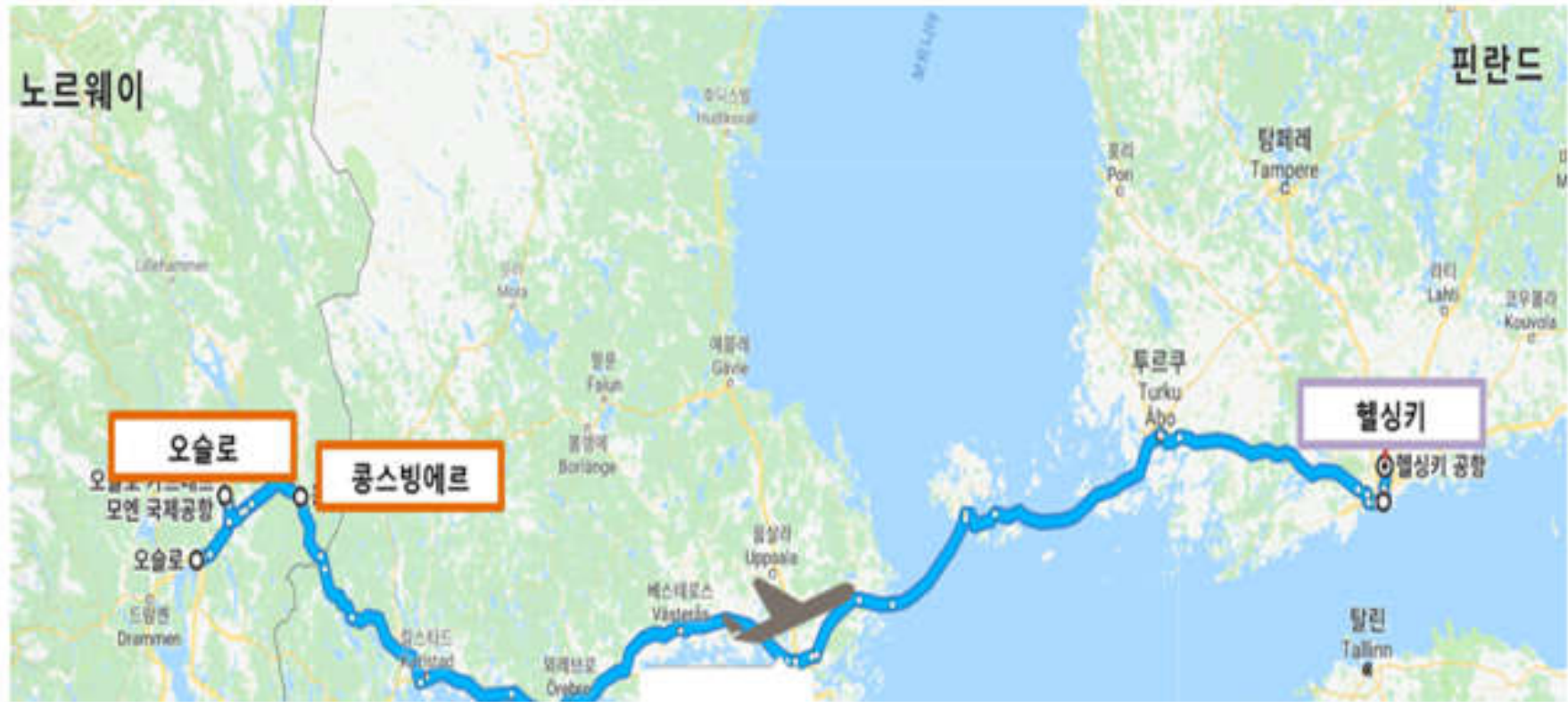
# 2018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결과보고

- ❖ 기간 : 18. 5. 29.(화) ~6.6.(수), 7박 9일
- ❖ 방문국가(도시) : 노르웨이(오슬로, 콩스빙에르), 핀란드(헬싱키)
- ❖ 연수자 : 위라겸, 김주희, 조연철 (13개 기관 24명)

# 연수 개요

연수명	2018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연수기간	2018. 5. 29.(화) ~ 6. 6.(수), 7박 9일
연구국가	노르웨이(오슬로, 콩스빙에르), 핀란드(헬싱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노르웨이 현지 여성정책 간담회</b>_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li> <li>✓ <b>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b> _위기센터사무국(Krisesentersekretariatet)</li> <li>✓ <b>성평등 장려를 위한 데이터 분석·배포 업무 수행</b> _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li> <li>✓ <b>성평등 연구결과를 활용한 지원정책 마련</b> _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 TANE)</li> <li>✓ <b>핀란드 여성 사회진출 독려 및 양성평등 활성화</b> _핀란여성협회연합(Nytkis)</li> <li>✓ <b>핀란드 여성연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촉진</b> _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The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li> <li>✓ <b>노르웨이의 유일한 여성박물관</b> _여성박물관(THE WOMEN'S MUSEUM, kvinnemuseet)</li> </ul>

# 이동 경로





## ✓ 노르웨이 현지 여성정책 간담회

- 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  
yeonkyeong.lee@nmbu.no  
Tel : +47 98 60 02 38
- 최정윤(컨설팅업체 근무, 현재 육아휴직 중)

# 노르웨이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

## ◆ 출산휴가

- 출산 예정일 3주 전부터 사용 가능

## ◆ 육아휴직

- 최소 49주부터 최대 59주까지 유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
- 42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 43주~59주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 보장
-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 14주는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 급여의 100% 보장  
→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
- 노르웨이 회사들은 방학 동안 회사의 빈 회의실을 놀이공간으로 마련, 부모들이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버지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 정착

## ◆ 양육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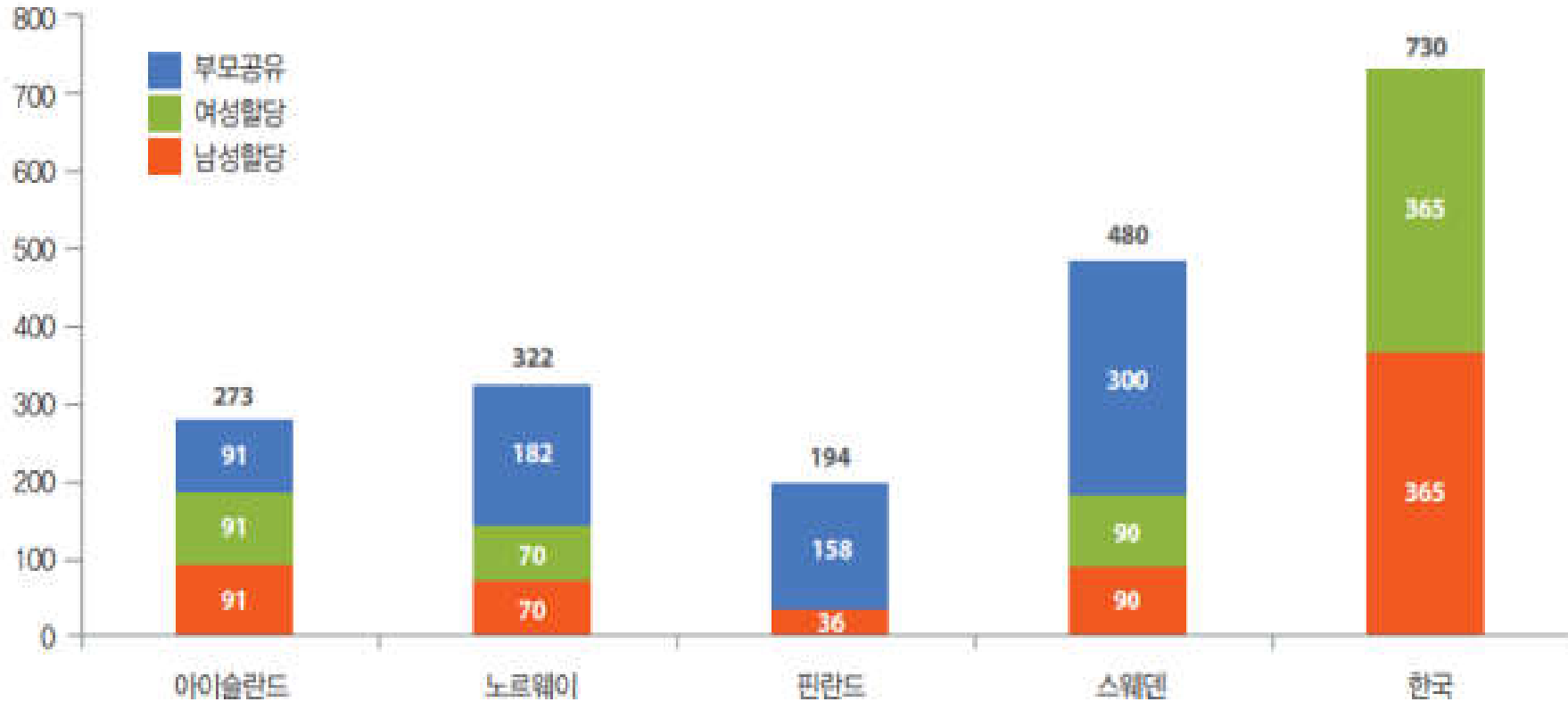
- 육아휴직 후 1~2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 ◆ 아동수당

- 만 18세까지 지급



#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비교



# 그러나 여전히...

## ● 성별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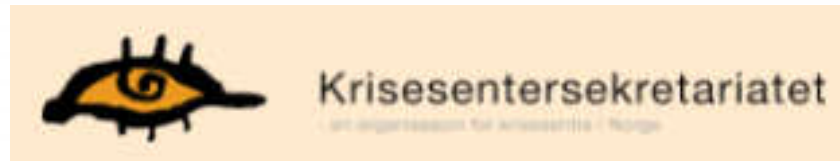
- 노르웨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 정도, 유럽 임금격차의 평균 수준
- 지도자나 고위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임금 차별 존재

\* 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의 경우,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2018년에 이르러서야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법 시행 예정

- 성평등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차별 존재. 노르웨이 남성과 노르웨이 여성 간 평등이지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민 차별 철폐**로는 이어지지 않음
- 구인공고에서 ‘여성 우대, 제3세계 국가 지원자 우대’ 등의 조건을 쉽게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음

## ✓ 위기센터사무국(Krisesentersekretariatet)



Karl Johans gt 16b, 0154 Oslo  
post@krisesenter.com  
www.krisesenter.com

- Briefing : Ms. Tove Smaadahl  
Tel : +47 905 79 118  
tsm@krisesent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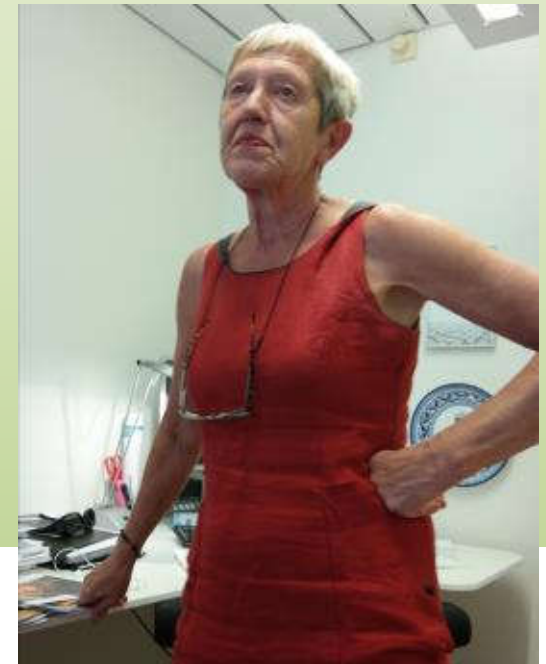
# 기관 현황과 역할

## ◆ 현황

- 1978년 오슬로에 처음 설립
- 현재 베르겐(Bergen), 트론헤임(Trondheim), 크리스티안산(Kristiansand), 트롬쇠(Tromsø) 등 노르웨이 곳곳에 46개의 위기센터 운영

## ◆ 주요 역할

- 정책에 위기센터 운영하면서 경험한 폭력 사례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지원방안이나 쉼터 환경을 개선하는 것
- 2010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위기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면서 앞으로 위기센터사무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



# 위기센터 이용 현황

- **여성폭력은 노르웨이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

- 1992년~2016년 여성 61,722명, 남성 620명, 아동 45,545명이 위기센터에 도움 요청
- 연간 문의건수가 약 2만 건 정도
- 매년 평균 여성 2,500명, 아동 2,000명이 센터 방문하여 도움 요청의
- 46개 위기센터에 도움 요청한 여성 중 60% 이상이 이주여성,  
이 중 30%는 노르웨이 현지 남자와 결혼한 경우. 이외 성적 인신매매 등

- **아동 보호에 대한 후속조치 강조**

- 2017년 기준 위기센터 보호 아동 1,483명, 평균 체류 기간 29일. 이 중 60%가 이민자, 센터 입소 아동의 7%는 장애아동
- 위기센터 방문 아동 4명 중 1명이 이전에 센터 방문, 체류 경험 있다는 통계결과 나오면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후속조치의 중요성 강조

# 레드 버튼 얼라이언스(Red Button Alliance) 캠페인

- ◆ 노르웨이 여성단체인 JURK( Islamic Council Norway, Reform Resource Center for Men)가 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시작한 캠페인
- ◆ ‘레드 버튼 얼라이언스’라고 칭하는 이들은 노르웨이 국립극장 주변 메인거리에서 빨간 버튼 상징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 홍보활동 수행
- ◆ 빨간색은 'STOP', 4개의 구멍은 예방과 연구, 권리, 도움 의미

Q. 정책 제안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가?  
A.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장관을 만나 특정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이메일 한 통으로도 편하게 약속을 잡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 ✓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Stensberggata 27, Oslo  
www.bufdir.no  
postmottak@bufetat.no  
contact : Henrik Nielsen  
henrik.nielsen@bufdir.no

- Briefing : Ms. Gada Ezat Aza (Senior advisor)  
Tel : +47 4661 5000  
Gada.Ezat.Azam@bufdir.no

# 기관의 위상과 역할

## ◆ 위상

-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기관

## ◆ 주요 역할

- 아동양육/복지/보호, 가족복지, 가족상담, 입양, 폭력예방 등 불평등 해소 정책에 책임
- 장애인, LGBTI 등 소수자 평등정책 추진, 근거 법령, 협약, 조약 조사, 정책 반영
- 타 부서가 성평등 인식 제고할 수 있도록 성평등이나 비차별 관련 기본 통계나 사실 근거 자료 제공(노동환경, 교육, 가족, 폭력, 건강, 경제 등)
-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제작·발간
  -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
  - LGBTI action plan, 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

### <각종 입법>

1975년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1977년 고용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8년 낙태 권리에 대한 법(Right to abortion)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

# 노르웨이 성평등증진 기관



#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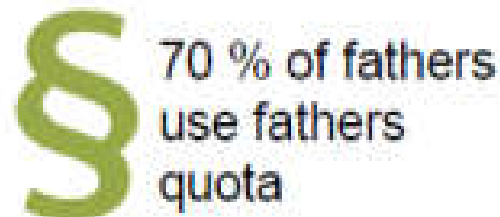
Phases towards gender equality (Hernes 1987)

Women access  
to labour market

Equal treatment  
in labour market

Family-friendly  
welfare state

GDP 3,3 trillions NOK less  
(1972-2013)



90 % of children  
in kindergarten

# 그러나 여전히...

## ● 성별에 따른 교육(전공) 분리

- 청소년 교육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 고등교육 진학 비율은 여성 39%, 남성 27%이나 학과 선택에서의 불균형(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직업 선택에도 영향
- > '소녀와 기술(Girls and technology)' 프로젝트 실시 등

## ● 성별 임금 격차

- 성별 직종 분리, 여성 파트타임 비율 높음
- 여성 임금은 남성의 87%(대출 포함), 전체 수입은 여성이 남성의 67%(연금 등 포함)
- > 200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이사 할당제 도입, 법제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 임원 확대, 민간기업의 경우 여성임원 목표나 할당 달성 시 정부조달계약권 등의 혜택 부여, 기업평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등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성이 가정에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주에게 남녀노동자 고용에 있어 똑같은 위험 부담을 안도록 하기 위해”



## ✓ 핀란드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 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  
FI-00023 Government, Finland  
Tel : +358 295 16001  
<http://tane.fi/en/frontpage>

- Briefing 1 : Milla Sandt (Planning Officer)  
firstname.lastname@stm.fi  
Tel : +358 295 163049
- Briefing 2 : Hannele Varsa (Secretary General)

# 기관의 위상과 역할

## ◆ 위상

- 1972년 설립, 핀란드에서 최초로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기관
-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
- 그러나 사회복지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

## ◆ 조직 구성

- △정당 대표 △NGO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여성협회연합(Nytkis) 등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 수 따라 구성원 수 변동)
- 분과위원회(2개)
  -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
  - 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

## ◆ 주요 역할

-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법률 제공, 입법 과정 자문, 법안 작성 시 청문회 주도 등
-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
- 양성평등 관련 연구 장려, 연구결과 시행 촉진

# 성평등 관련 핀란드 정부부처기관

## 성평등협의회

-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 제시
- 양성평등 실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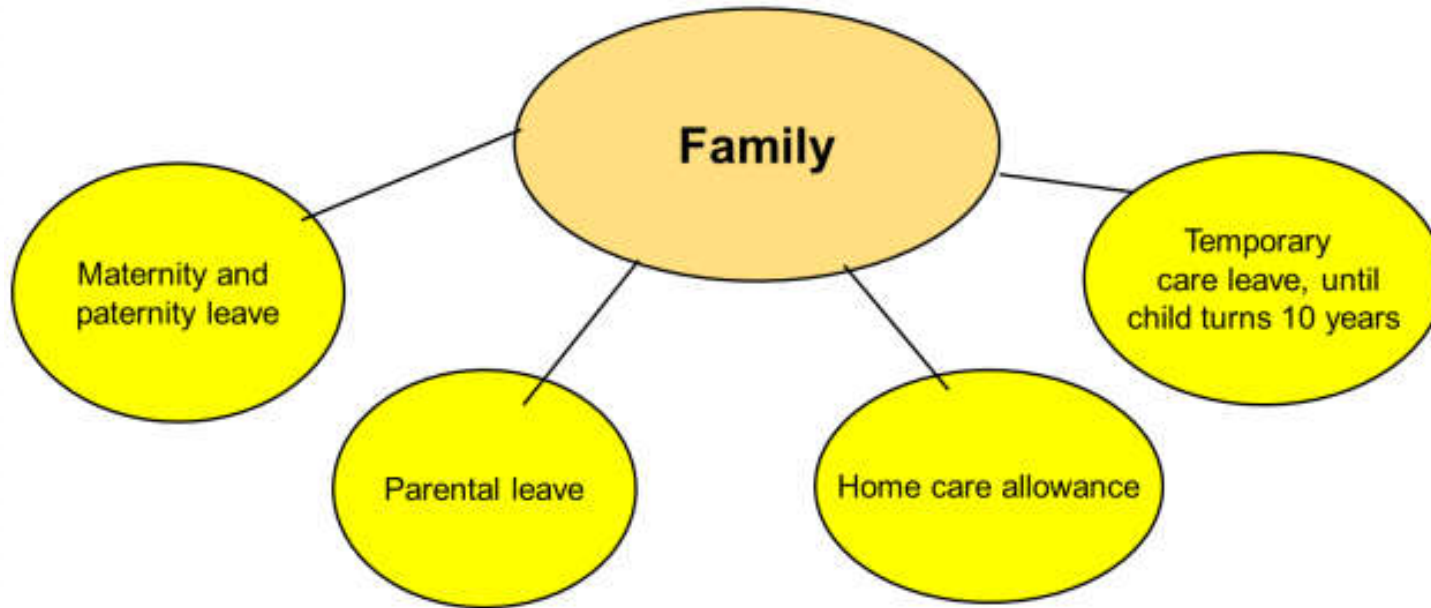
## 성평등유니트

- 2001년 설립
- 성평등 정책 준비 및 입법 관련 활동 수행
- EU의 성평등 법규 및 국제 문제 관련 업무 담당

## 평등옴부즈맨

- 1986년 설립
- 성평등 관련 법률 관리 및 감독 시행

\* 핀란드 여성의원 네트워킹  
- 모든 정당에 정당 내 여성네트워크 조직  
- 1991년 '여성의원네트워크' 조직  
- 핀란드 양육법 입법에 주도적 역할



## ◆ 출산휴가

- 총 4개월
- ‘부성 출산휴가’ : 최장 18일, 급여 100%보장

# 탄탄한 보육서비스

## ◆ 육아휴직

- 출산휴가 직후 6개월 (부모가 나누어 사용 가능)
- 급여의 6~70% 보장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
- 맞벌이의 경우 남성이 추가로 육아휴직 10주 사용 가능하나, 임금 때문에 사용률은 35%
-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 부여. 이 가운데 18일은 출산휴가 기간 사용 가능,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 (미이용 시 자동 소멸)

## ◆ 데이케어 서비스

- 1973년 최초로 아동 관련 법령 공포
- 1990년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
- 1996년 만 6세 이하로 서비스 확대
- 경제 악화로 인해 2016년부터 서비스 범위 감소
  - 이전에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미취업자인 경우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 제한

## ✓ 핀란드여성협회연합(Nytkis)



Bulevardi 11 A 1  
00120 Helsinki, Finland  
[www.nytkis.org](http://www.nytkis.org)

- Briefing : Katariina Hyvärinen (Coordinator)  
[jarjestokoordinaattori@nytkis.org](mailto:jarjestokoordinaattori@nytkis.org)  
[Gada.Ezat.Azam@bufdir.no](mailto:Gada.Ezat.Azam@bufdir.no)

# 기관의 위상

## ◆ 위상

- 1988년 설립된 연합체

## ◆ 회원 구성

- 11개 기관, 8개 정당, 3개 NGO (총 회원 수 약 47만 명)
- 회원기관 간 순환으로 의장 선출 (2018년 현재 핀란드 사회민주당 오울루(Oulu) 시의원)

- Christian Democratic Women in Finland
- Finnish Social Democratic Women
- The Green Women's Association
- Left Women
- The Women of True Finns
- The Women's League of the Coalition Party
- The Women's Organisation of the Centre Part
- The Women's Organisation of the Swedish People's Party
- The Association for Women's Studies in Finland
- The Feminist Association Unioni
- 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Umbrella organisation, 62 member organisations. Their objective is to promote equality, human rights, and the status of women in the Finnish society)

## ◆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 2014년 ‘여성폭력 예방’, 2015년 ‘정신적 폭력 예방’, 2017년 ‘아동보호’ 캠페인
- 2017년 11월 25일 ‘폭력이 아닌 빛’ 캠페인
  - 매년 20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현상에 대한 형상화를 통한 인식 제고



## ◆ 회원기관 간 협력 활동

- 3.8여성의날, 여성폭력근절의 날,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등 공동 주최
- 의회,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
- 청문회 참석을 위한 성명서 및 제안서 초안 작성
- 15개 Nykis 지역위원회 관리 등





## ✓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 (The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

<https://blogs.helsinki.fi/tutkijanaiset>

Contact : Nina Maskulin

nina.maskulin@helsinki.fi

- Briefing : Päivi Salmesvuori (Chair of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  
paivi.salmesvuori@helsinki.fi

# 기관의 위상과 활동

## ◆ 위상

- 1988년 설립
- 핀란드 내 여성연구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촉진제 역할
- 헬싱키, 반타, 에스푸 지역 대학의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지도자, 예술가, 물리학자 등 다양한 회원간 네트워크

## ◆ 주요 활동

- 여성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 연구계 및 NGO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과 연구계에서 양성평등 장려
- 여성연구 문제 관련 공개 토론, 세미나, 이벤트 등 주최 역할

## ◆ 2018년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헬싱키대학교, 알토대학교 등 대학교 직원과 학생 대상
- 총 응답자 437명 가운데 여성 79%, 남성 18%, 기타 3%
- 여성 응답자의 절반과 남성 응답자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
-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본인에 대한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
-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 방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통로 마련 등의 조치 제안

# 'We all Finland' 프로젝트



- ◆ 평등 관련 역할 모델이 이미 존재하지만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북유럽국가에서도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일상과 직장 내 성평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We all Finland' 프로젝트 시작
- ◆ 첫 번째, 부모의 역할과 일의 상관관계와 직장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의 관행 조사 실시, 여성의 경력발전과 임금평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젊은 여성이나 이민자의 취업 기회 확대 목표,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민자 고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
- ◆ 두 번째,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활동, 직장복지와 연금, 교대근무 등 부분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 ✓ 여성박물관(THE WOMEN'S MUSEUM, kvinnemuseet)

L ø kkegata 35, 2213 Kongsvinger

Tel: (+47) 62 88 82 90

<https://kvinnemuseet.no>

[kvinnemuseet@annomuseum.no](mailto:kvinnemuseet@annomuseum.no)

Contact : Mona Holm

Tel : +47 926 52 008

[Mona.Holm@annomuseum.no](mailto:Mona.Holm@annomuseum.no)

# 박물관의 위상과 역할

## ◆ 노르웨이의 유일한 여성박물관 (여성의 관점에서 정리한 역사 전시)

- 노르웨이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단체인 NKF의 125주년 기념 전시
- 노르웨이 여성의 공개 투쟁 이야기
- 보헤미안의 삶을 산 여성의 스토리 등

## ◆ 총 6개의 전시

- 1층 : 카페테리아, 아동전시, 박물관 도서관
  - \* 아동전시 : 2017년 시작,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며 그 시작은 어린이라는 인식 제고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  
남아와 여아가 성장과정에서 주로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물건을 통해서 성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전시
- 2층 :
  - △노르웨이 콩스빙에르 출신 여성작가 Dagny Juel Przybyszewska의 보헤미안으로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
  - △Metoo 운동 관련 포스터
  - △사회 속 노르웨이 여성의 모습과 관련된 작품

# 전시실



감사합니다